



50인승 中型 항공기 1998년까지 國産化

- 상공자원부,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 公表
- 대통령 산하 「항공우주산업기획단(假稱)」설치

長期 비전(Vision)의 不在속에 업체별로 추진되어오던 국내 항공우주산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상공자원부는 국내항공우주산업을 2000년대에 세계 10위권으로 올려놓는다는 목표로, 오는 2002년까지 모두 1조9천억원의 연구개발투자와 1조4천억원의 설비투자등 모두 3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한 육성 전략」을 3월 12일 공개했다.

상공자원부는 우선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모두 2천5백억원을 투자해 50인승급의 中型

항공기(Commuter機)를 개발, 실용화하고 2000년까지는 대형항공기의 국제공동생산에 참여하며, 2000년이후부터는 차세대 장거리용 대형여객기의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추진하는 국산 중형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1천6백km에 달하며, 대형여객기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잔디밭이나 임시활주로에서 5백m거리만 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으로, 「불사조(피닉스)호(사진)」로 명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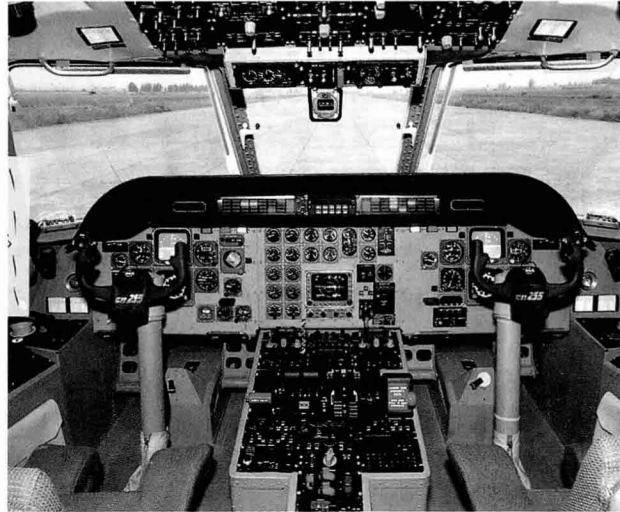
姜昌淳 상공자원부 항공·방산과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의 4대 요체는 엔진과 Aviation 부문, 市場 그리고 품질 인증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姜과장은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Dash, 유럽의 ATR, 스페인의 CASA 등과의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럽의 ATR-42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현재 국방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체신부, 교통부로 분산돼 있는 항공우주관련사업을 종합기획 조정할수 있는 통합기구로 청와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기획단(假稱)」을 대통령 산하기구로 설치하고,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에 따른 10개년 발전계획을 올 상반기중에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姜昌淳 상공자원부 항공·방산과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의 4大 요체는 엔진과 Aviation 부문, 市場 그리고 품질인증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의 해결은 국산화의 노력과 함께 해외협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姜과장은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Dash, 유럽의 ATR(佛·伊 합작법인), 스페인의 CASA 그리고 기타 아시아 주변국과의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품질인증이 해결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市場性과 관련하여 姜과장은 收支의 분기점을 1백50대선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2000년대초 소요분 70~80대외에 아시아권에 대한



스페인 CASA社의 CN-235 조종실 내부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병행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함께 국내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등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개발품목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정부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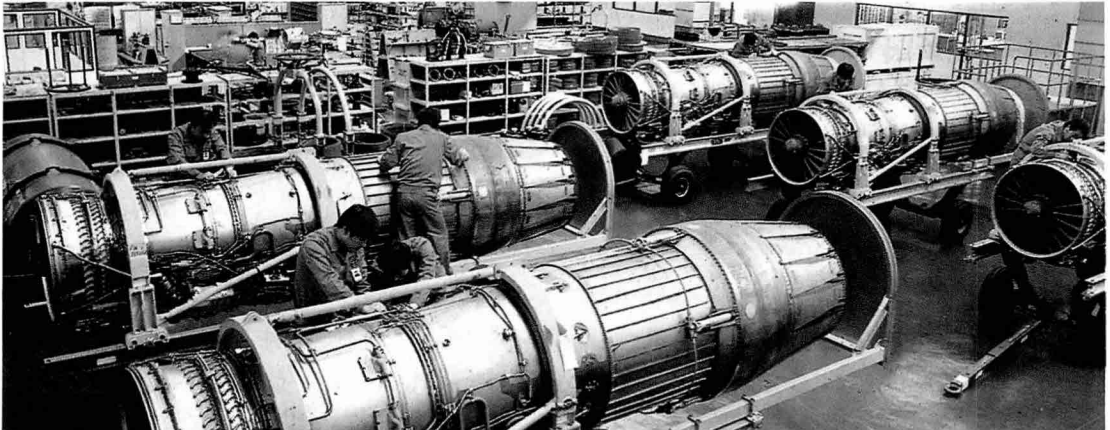
삼성항공, 항공기 엔진 생산 2천대 돌파

三星航空 (대표:李大遠)이 3월 4일 항공기엔진생산 2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항공은 지난 82년 국산전투기 제공호 엔진을 처음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해, 87년 5월 항공기 엔진생산 1천대를

기록한데 이어 또다시 2천대 생산 돌파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삼성항공은 지난 82년 미국 FAA(연방항공청)로부터 엔진 및 보기분야의 수리공인자격을 획득한바 있다

삼성항공이 3월 4일 항공기 엔진 생산 2천대 돌파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핵관련 간담회 스케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응책을 청취하기 위해 權寧海 국방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3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방안에 초점이 모아졌으며, 與野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의 선제공격 등 무력제재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問答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黃明秀 의원(민자당)



핵전력의 不在를 보완할 수 있는 우리軍의 전략은 무엇이며, 혹시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로 긴장이 야기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비핵화 선언 자체를 再考할 상황은 아닌지?

핵무기와 관련되어 화학무기도 일종의 전략 무기에 포함되는 범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4일 화학무기협약의 원서명국으로 가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非核과 더불어 非화학 선언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화학무기를 보유, 개발하고자하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서둘러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이 국익에 더 많은 이익을 주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여겨집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의식해 화학무기협약에 서명은 하더라도 비준은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하겠다고 들었는데,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와 개발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鄭大哲 의원(민주당)



그동안 정부의 對北「핵」정책은 통일원이나 국방부 보다는 오히려 안기부에서 주도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국방부의 북한 NPT 탈퇴 상황 또는 북의 핵 실태 현황보고 수준도 거의 외신이나 언론보도 수준에 의존하는것으로 볼때, 정부가 북의 핵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간연구원에서부터 북의 핵무기 보유 추정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의 「핵」에 관한 정보는 이제는 보안유지되어야 할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안기부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든지 또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든지 북의 핵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북에 대한 제재나 압력을 국제사회에 의존하여 북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민족내부에서 설득해 보려는 정책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徐秀宗 의원(민자당)



우리의 비핵화선언이 현실시점에서 볼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T/S의 중지나 재개때 노렸던 우리측의 의도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NPT탈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서 핵을 개발하거나 또는 보유한 것이 드러날 때, 미국의 대응태세와 북한의 태도는? 외교, 경제제재가 실패할 경우 일방적인 무력제재로 까지 갈 가능성은 없는지?

만에 하나 미국이 무력제재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韓·美간의 사전협의 및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꼭 밝히고 싶은 것은 북한핵문제는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결정이나 유엔의 제재조치를 보고 우리측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식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羅 柄 扇 의원 (민주당)



한국의 상용 원자로 9기 중 8기가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경수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는한, 원자력 산업의 외국종속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의 자국화를 추진하고 미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재협상을 통하여 일본과 같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한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여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의 전략개념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개념을 강구하고 있는지?

현재 국내 방산업체의 실태를 보면 거의 고사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에 절대로 필요한 산업이기에 이를 유지 발전시켜 국가발전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權 寧 海 국방부장관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우방과의 외교협력을 통해 북한의 탈퇴 철회와 핵위협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軍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아울러 강

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80년대에 고풍실험을 70여회나 실시했고 핵기폭 장치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사정거리 1천km인 로동 1호 미사일의 시험발사 성공과 사정거리 1천5백km인 스킨미사일을 연구중임을 감안할때, 이미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에서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으나, IAEA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AEA의 사찰을 앞두고 북한이 영변의 고풍실험장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서두르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채택, 선언한 非核化공동선언과 같은것을 바꾸는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泰)

제24대 국방부차관에 李秀傑 前 재무차관 부임

李秀傑 차관은 치밀하고 소신있는 성품과 탁월한 업무추진능력으로 재무부의 여러 요직을 역임하면서, 재정금융정책의 주요한 과제들을 훌륭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중의 공무원」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함께 일해온 선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며, 국방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필 李秀傑 차관

출 생 : 1937년 경상남도 창원
 가 족 : 沈淑女 여사와 3男
 취 미 : 바둑
 학 력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약 력 : 재무부 | 이재국장, 국고국장
 | 증권국장
 | 제1차관보, 2차관보
 관세청장, 재무부차관



금성정밀은 4월 2일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중서부전선 ○○부대 통신평지지원대내에 防産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방산업계 事前서비스(B/S)시대 진입에 전주곡을 울려주었다. 이번에 신설된 방산서비스센터는 서비스의 개념을 事前서비스로 확대, 명실상부한 서비스 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성정밀, 防産 서비스센터 개설 - 방위산업... 事前서비스(B/S)시대 進入 -

금성정밀 이 지난해에 이어 4월 「고객의 달」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고객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고객의 달」 행사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기본을 「고객」으로 삼고 있는 금성정밀의 기업관 표출이라는 시각과 함께, 一過性 서비스가 아님을 반증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고객의 달」 행사는 전국 40개 지역의 순회 서비스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임직원 간담회, 고객초청행사 등과 함께 安致瀚 社長이 순회 서비스 일정에 맞추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성정밀은 4월 2일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중서부전선 ○○부대 통신평지지원대내에 防産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방산업계 事前서비스(B/S)시대 진입에 전주곡을 울려주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방산서비스센터는 종래의 事後서비스(After Service)는 물론 軍 부대를 사전예방, 장비를 점검하고 운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서비스의 개념을 事前서비스(Before Service)로 확대, 명실상부한 서비스 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防産서비스의 취약점이었던 신속성과 기동성의 문제를 타개해나가는 한편, 사용軍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성정밀은 작년 2월에 「서비스室」을 신설하여 그룹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강조의 능동적 구현 기반을 구축한바 있으며, 지난해 무상(無償) 서비스 실적은 17종의 장비를 대상으로 1천7백56건이 접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例는 우리 軍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방산전문업체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해가는 귀감으로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 軍을 훌륭한 고객으로 인식하는 총체적 기업관의 표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泰)

(주)풍산, 泰國 현지 합작 伸銅공장 준공

태국 최초의 伸銅공장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과 설비로 세워졌다.

약 7천만불이 투자되어 2년4개월만에 건설된 이 공장은 (주)풍산과 태국의 파댕사가 지난 90년 5월 합작회사인 파댕 풍산메탈사(약칭 PPM)를 설립하여 세운 것으로, 태국내 최초의 신동 압연공장이다.

태국의 라엠차방(Lacm Chabang) 공업단지에서 세워진 PPM의 신동공장은 (주)풍산이 기계장비와 기술을 제공했는데, 1단계로 年間 1만5천톤의 銅 및 銅합금 板·帶 등 압연재와 鑄貨用 素錢, 防産用 伸材를 생산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연차적으로 棒공장 등을 건설한다.

3월 1일 태국 라엠차방 공단 현지에서 거행된 준공식에는 한국측에서 柳纘佑 (주)풍산 회장과 盧信永 前 국무총리, 韓鐸 採 駐태국대사 등이, 태국측에서 암누이 부총리, 카존프라사트 상공장관, 남만헤민 재무장관과 사라신 PPM 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하였다.

태국 정부는 신동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PPM사에 외국 합작기업에는 이례적으로 태국 재무성과 재무성 산하 국책은행인 GSB가 자본 참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PM은 이미 2월 중순 태국 재무성이 실시한 1바트용 소전입찰에서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과 경합, 1,130톤(573만불)의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높은 대외경쟁력을 과시했다.

러시아 첨단기술전시회 열려 ... 5월 31일부터 大德연구단지에서

대규모 의 러시아 첨단기술전시회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동안 대덕연구단지내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러시아의 상품이 국내에 전시 소개된 적은 있으나, 첨단기술 자체가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동안 서울에서 제3차 한·러 과학기술



▲ 준공식장 앞에서 함께한 풍산의 柳纘佑 회장과 파댕 풍산메탈(PPM)사의 사라신 회장

▼ 준공식장에서 柳纘佑 회장이 태국의 전통적인 고사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



태국 합작 신동공장의 건설로 (주)풍산은 국내 溫山, 富平공장의 25만톤 생산설비와 압연제품 年産 10만톤 설비를 갖춘 미국의 PMX 인더스트리社와 함께, 36만5천톤의 생산설비를 확보한 세계적 伸銅기업으로 떠올랐다.

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인데, 이 기간중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한자리에 모으는 전시회를 마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첨단기술이전 및 기업화 추진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러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 소재, 광학 등 3개분야의 51개 첨단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며, 2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와 워크숍도 함께 개최된다.